

쌍화탕과 쌍화차의 시대적 변화 과정 고찰 - 쌍화탕은 어떻게 ‘차’가 되었을까? -

박인효¹⁾ · 이상재^{2)*}

¹⁾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강사

²⁾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교실 교수

Study on the Historical Aspects of *SSangwha-tang* (Decoction) and *SSangwha-cha* - How did *Ssangwha-tang* become Tea? -

Inhyo Park¹⁾, Sangjae Lee^{2)*}

¹⁾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²⁾ Division of Ungeti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Professor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of *Ssangwha-tang*, traditional restorative medicine, to a type of tea in tea rooms(Da-bang) named *Ssangwha-cha* in the modern era in South Korea. The goal is to understand how traditional Korean medical culture has been related to the food culture of everyday life.

Method : We analyzed traditional medical texts, newspaper articles and advertisements, literary works, and folk song lyrics in which *Ssangwha-tang* and *Ssangwha-cha* are mentioned.

Results : *Ssangwha-tang* used to be mentioned as a medicine to tonify ‘Yang’ energy(Bo-yang) in traditional medical text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mid-Joseon dynasty.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it has also been prescribed for cold, as the tonifying method(Bo-beop) gradually prevailed from the royal family to the public. Since then, *Ssangwha-tang* has been more popular with the public, with the emergence of the patent medicine(Mae-yak) market since the Opening port period and the Colonial period. As the number of Da-bang sharply increased nationwide amid the period of the country’s liberation, *Ssangwha-tang* has been included in the Da-bang menu served as *Ssangwha-cha*, corresponding to the increasing demands of the public and government policy that tends to favor traditional beverages over coffee.

Conclusion :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Ssangwha-tang*, a type of herbal medicine, became also considered as tea, *Ssangwha-cha*, provides an example of how Korean traditional medical culture emphasizing the tonification of the body is interconnected with the daily lives of the public and food culture.

Key words : *SSangwha-tang*, *SSangwha-cha*, Medical culture, Medicinal herbs, Tonifying method

• 접수 : 2022년 11월 25일 • 수정접수 : 2022년 12월 16일 • 채택 : 2022년 12월 21일

*교신저자 : 이상재, 5061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로 49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506호

전화 : 051-510-8472, 팩스 : 051-510-8437, 전자우편 : prehan@pusan.ac.kr

I. 서론

쌍화탕은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 생강, 대추를 재료로 구성된 처방으로, 처음 언급된 중국 송대의 의서인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기혈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보하는 약”으로 소개되고 있다.¹⁾ 한편, 쌍화탕의 현대적 효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항염증, 항피로, 항산화, 간 기능 개선, 진통 및 항경련, 성호르몬 분비 촉진, 골다공증 개선 및 면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한편, 현재 쌍화탕은 한약 처방으로서뿐만 아니라 쌍화차로서 다방이나 찻집, 혹은 가정에서 즐겨 애용되고 있는 음료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쌍화차는 여러 재료가 배합된 복방차(複方茶) 중 국내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방차로 조사된 바 있다.³⁾ 이처럼 쌍화탕이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다양하게 판매 또는 처방될 뿐만 아니라, 다방이나 카페, 편의점에서 음료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모습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과 음식문화 간의 연관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전통주에 활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⁴⁾, 현재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에 관한 연구⁵⁾ 등이 주를 이루고, 그밖에 약용식물의 조리법에 대한 문헌 연구⁶⁾ 등이 있으나, 실제로 한약 처방이 음식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간 시대적 변화 과정을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 의학의 영역이 근대의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일상생활 속의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어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쌍화탕이 쌍화차로 자리 잡게 되어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쌍화탕이 우리나라 의서에 어떻게 소개되어 이어져 왔고, 쌍화탕의 효능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신문기사 및 광고, 문학-예술 작품 등에서 쌍화탕과 쌍화차가 어떻게 언급됐는지를 문헌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보약으로 활용되었던 쌍화탕이 조선 후기 이후 감기약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매약(賣藥)의 형태로 상품화되며 일반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으로 대중화되어간 과정을 살펴본 다음, 해방 후 다방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쌍화차라는 음료로서 다방의 주요 메뉴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전통 의서의 쌍화탕 관련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구축한 한의학교전DB⁷⁾에서 검색하여 분석하였고, 그 밖의 문헌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⁸⁾의 한국사료총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근현대 잡지지자료를 등을 활용하였다. 신문기사 검색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⁹⁾를 활용하였고, 그 밖의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¹⁰⁾에서 검색하였다.

쌍화탕이 차가 되는 과정은 의서의 쌍화탕 내용, 쌍화탕의 대중화, 감기약으로 적응증 확대, 쌍화차의 등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본론

1. 전통 의서에서의 쌍화탕: 쌍화탕의 등장과 '보약'으로서의 쌍화탕

의서에서 쌍화탕은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¹¹⁾의 제5권 <치제허(治諸虛)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허(虛)함을 치료하는 64종의 처방 가운데 쌍화탕은 <보경신증방(寶慶新增方)에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경년간(寶慶年間: 1225~1227)에 증보될 때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쌍화탕은 사람 몸의 쇠약을 의미하는 오로(五勞), 육극(六極), 칠상(七傷)에 기혈을 보충하고, 소화를 도와 입맛을 돋우어 허해진 몸을 보하는 약으로 묘사되어 있고, 처방의 구성은 백작약, 당귀, 황기, 천궁, 숙지황, 감초, 육계, 생강, 대추로 되어있다.^{a)} 우리나라의 의서 중에는 『동의보감(東

a) 雙和湯 治男子婦人五勞六極七傷 心身俱虛 精血氣少 遂成虛勞 百骸枯瘁 四肢倦怠 寒熱往來 咳嗽因乾 行動喘之 面色萎黃 略

醫寶鑑』¹²⁾ 진액문(津液門)과 내상문(內傷門)에 자한(自汗), 도한(盜汗) 등 땀을 치료하는 처방, 음양이 모두 허하거나 간이 허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기록^{b)}되어 있다. 동의보감에 언급된 쌍화탕의 처방은 태평हे민 화제국방에서 언급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무리한 상태에서 성관계 후 복용하거나 기력이 허해져서 땀을 흘릴 때 처방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의학입문(醫學入門)』¹³⁾의 쌍화산(雙和散) 내용^{c)}과 유사하다.

동의보감을 간략화한 『제중신편(濟衆新編)』과 『방약합편(方藥合編)』에도 쌍화탕에 대해 동의보감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등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주요 의서에는 쌍화탕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도 사물탕과 같은 처방은 나오지만 쌍화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요컨대, 쌍화탕은 일부 전통 의서에서 기력을 보하는 약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개항기 이전까지 일반 문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쌍화탕이 현재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폭넓게 활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쌍화탕의 대중화

근대 이전 의서에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기타 문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쌍화탕은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의서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나 기사, 문학작품 등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쌍화탕이 이 시기에 이르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전통 한약 처방이 서양의학 기반의 매약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품화되어 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⁴⁾ 여기서는 쌍화탕이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대중화되며 일반 민중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매약의 활성화와 쌍화탕

쌍화탕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시기는 개항기를 거쳐 매약상의 활동이 본격화된 일제강점기로 볼 수 있다. 개항과 함께 서구의 양약과 근대화된 형태의 일본 한방약이 매약(賣藥)의 형태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국내 약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매약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¹⁵⁾ 기존에



Figure 1. Advertisements on *Ssangwaha-tang* in the 1920s.¹⁷⁾

有所觸 易成他疾 或傷於冷 則宿食不消 脾疼腹瀉 瀉痢吐逆 或傷於熱 則頭眩目眩 痰涎氣促 惡心煩熱 或因飢飽動作 喜怒驚恐 病隨而至 或虛脹而 不思食 或多食而不生肌肉 心煩虛汗盜汗 一切虛勞 不敢服燥藥者 並宜服之 常服調中養氣 益血育神 和胃進食 補虛損 白芍藥 七兩半 當歸(洗, 酒浸) 黃耆(蜜炙) 川芎 熟地黃(淨洗, 酒蒸) 各三兩 甘草(炙) 肉桂(去皮, 不見火) 各二兩二錢半 上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半 生薑三片 棗子一枚 煎至六分 空心 食前服.

- b) **雙和湯** 治心力俱勞 氣血皆傷 或房室後勞役 或勞役後犯房 及大病後虛勞 氣乏自汗等證 白芍藥二錢半 熟地黃黃芪當歸川芎各一錢 桂皮甘草各七分半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一名雙和散 乃建中湯四物湯合爲一方 大病後虛勞 氣乏最效.
- c) **雙和散** 治心力俱勞 氣血俱傷 或房室之後勞役 或勞役之後犯房 大病後虛勞氣乏等證 黃芪 川芎 當歸 熟地各一錢 官桂 甘草各七分半 白芍二錢半 薑棗煎服 以此調治 但陰虛火動者 宜善加減 又黃芪 當歸二味 亦名 補血湯 善治內傷發熱 人參養榮湯 黃芪建中湯 八物湯 平胃散 五苓散 皆調理間用之劑也.

Table 1. Sales of Medicinal Herbs in Daegu Herbal Medicine Market (Yakryeongsi) (1922)¹⁸⁾

약재명	수량 (斤)	産出地名	移出地名
인삼	7,000	개성	朝鮮全部
인삼	300	중국	-
녹용	300	중국	朝鮮全部
숙지황	60,000	경북	朝鮮全部
당귀	20,000	함남, 강원	南鮮各地
천궁	10,000	경남	朝鮮全部
백작약	15,000	함경남, 강원	南鮮各地
백출	10,000	경북	朝鮮全部
창출	5,000	경북	朝鮮全部
반하	3,000	南鮮	朝鮮全部
산약	3,000	南鮮	南鮮各地
산수유	4,000	경북, 전북	朝鮮全部
목단	15,000	전남	朝鮮全部
택사	8,000	南鮮	朝鮮全部
백복령	5,000	경북, 강원	南鮮各地
황기	10,000	경남, 함경남북	朝鮮全部
황금	5,000	경북	朝鮮全部
구기자	5,000	경북, 전남	朝鮮全部
건강	6,000	전북, 일본	朝鮮全部
향부자	10,000	경북	朝鮮全部
진피	5,000	일본	南鮮各地
당재각종	25,000	중국	南鮮各地

이용되어온 한약에 기반한 매약은 상품화, 규격화의 과정을 거치며 법적 규정에 따라 효능과 용법이 명시되는 근대화된 형태의 의약으로 차츰 변모하게 된다.¹⁶⁾

상품화된 매약으로서의 쌍화탕은 일제강점기 매약 광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주로 첩약 판매를 위한 약방광고에 십전대보탕, 팔미탕, 육미탕, 사물탕, 팔물탕 등과 함께 실려 있다. 이 시기의 광고들을 살펴보면, 쌍화탕은 첩약형태로 1제(20첩) 단위로 판매되는 한편, 약재의 질에 따라 극상(極上), 중(中), 하(下) 등으로 나누어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 가격은 다른 약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광고지라 할 수 있는 약보(藥報)에도 이 시기에 쌍화탕이 등장하는데, 약효 등에 관한 내용은 주로 동의보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한약업자조합에서 조사한 1922년도의 대구약령시 한약재 거래상황을 보면 당시 쌍화탕의 거래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거래량은 숙지황, 당귀, 백작약,

목단피, 황기, 천궁 순으로 높았다. 목단피를 제외하고는 모두 쌍화탕의 재료인데, 이 자료는 당시 매약품목으로 인기 있었던 품목이 육미환, 팔미환, 사물탕,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이었음을 뒷받침해준다. 이 처방들은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한국 한의사들도 애용하는 처방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았을 때, 매약으로 판매된 쌍화탕은 일제강점기 한약 기반의 매약 중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성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쌍화탕은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비교적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이라는 점이 쌍화탕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쌍화탕, 일상 속으로

매약상들에 의한 쌍화탕 매약의 성행으로 쌍화탕은 민중의 일상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된다. 이러한 쌍화탕의 일상화는 신문기사 등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과 민요, 탈춤의 가사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에 걸쳐 쌍화탕 매약이 성행하는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쌍화탕을 다려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쌍화탕 장수, 쌍화탕 행상이 등장하면서 쌍화탕은 더욱더 일상의 삶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아래의 기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금일 부내 용산서 관내의 각처 연관에 아침이면 손님들의 깨어날 시각에 정거장의 차팔듯이 쌍화탕을 끌어 가지고 팔러다니는 약행상이 만는데 그자들중에는 너무 에로틱한 선전을 하면서 쌍화탕을 사라고 졸르는 바람에 도리혀 곤혹을 늦기는 손님들이 만으며 또 그 소위 쌍화탕이 진품인지도 몰물일이어서 용산서위생계에서는 철저히 단속할터이라 한다.¹⁹⁾

1936년 작성된 위의 기사에서는 서울 용산에서 행상들이 아침이면 쌍화탕을 팔러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길에서 파는 쌍화탕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단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정도로 쌍화탕 판매가 흔한 일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쌍화탕이 범죄사건에 이용되는 기사도 살펴볼 수 있는데, 1920~30년대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백만장자독살사건'에 쌍화탕이 등장한다.²⁰⁾ 아내가 쌍화탕에 아편을 타 남편을 독살한 이 사건에서 감기에 걸린 남편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먹인 약이 쌍화탕이었다는 점은, 당시에 쌍화탕이 감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30년대 초반 간행된 아래의 수필에서도 당시 쌍화탕 음용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때는 1930년 가을, 나는 예술사진 연구가 D君과 洋畫家 P君과 作伴하여 3인이 南國情趣가 躍動하는 晋州를 갔었다... 「누구던지 晋州를 가보소, 妓生 만키론 朝鮮에 第一이요, 아침이면 여관마다 쌍화탕을 대러가지고 팔나 단이는 곳이 또다시 어느 지방에 있는가? 이만 하면 色鄕이라기도 過히 거짓말이 안될 것이요...」²¹⁾

위의 수필에서는 진주의 여관에서 아침마다 쌍화탕을 만들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팔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쌍화탕은 당시 일부러 약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쌍화탕이 대중화되면서 쌍화탕에 대한 언급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공연예술이나 구전 민요에의 가사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1930년대에 연행된 봉산탈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²²⁾

“嘔吐에는 伏苓半夏湯, 感氣에는 敗毒散
關隔에는 消滯丸, 口疳에는 甘吉湯
丹毒엔 犀角消毒飲, 房事後엔 雙和湯
癩亂에는 香靈散, 이러한 靈藥들이 世上에 갖득 하건만
藥 한 帖 못써 보고 갑자기 죽었스니
이런 氣막힐 때가 어디 또 잇단 말가.”²³⁾

“방사후(房事後)엔 쌍화탕(雙和湯)”이라는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 후 몸을 보하는 쌍화탕의 효능이 봉산탈춤의 한 대목에 담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대사와 함께, 앞에 언급된 용산 지역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쌍화탕을 판매하는 상인이 “에로틱한 장면”을 보여주며 광고하는 모습이나, 진주에서 쌍화탕이 많이 팔리는 상황에 대해 “색향(色鄕)”으로 묘사하고 있는 수필에서도 언급되는 바와 같이, 성관계 후에 몸을 보하거나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쌍화탕의 효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또한 쌍화탕의 인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구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잘 알려진 진도아리랑의 모태가 되는 남도아리랑의 가사에도 쌍화탕이 언급된 구절이 보인다.²⁴⁾ 구전되어 전해지고 있는 남도아리랑의 가사 중 “정든님 손길이 쌍화탕보다는 낫더라”라는 구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쌍화탕은 일반 민중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약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문학작품과 구전 민요에서 쌍화탕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모습은 근대 이전의 경우 의서 외에는 언급되지 않던 상황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3. 쌍화탕, 감기약으로

조선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쌍화탕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의약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언급된 쌍화탕은 보약으로 뿐만 아니라 감기약으로도 묘사되고 있다. 아래에 인용된 김남천의 소설 제퇴선(1937)에서는 쌍화탕을 파는 약장수의 모습과 쌍화탕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쌍화탕

Table 2. Contents on *Ssangwha-tang* in Uibanghwaltu²⁶⁾

寒	虛勞	[三十一]「寶」雙和湯
<p>[中寒] 附子理中湯上九, 麻桂飲中三十一, 理陰煎上十一, 雙和湯上三十一, 十神湯中十八, 參蘇飲中二十六, 小承氣湯下八, 調胃承氣湯下八</p>	<p>[陰陽虛] 雙和湯上三十一 八物湯上三十二</p>	<p>治氣血俱傷或房室後勞役或勞役後犯房及 大病後氣乏自汗 ○乃建中四物合方也 白芍藥二錢五分 熟地黃 黃芪 當歸 川芎各 一錢 桂皮 甘草各七分半 薑三片 棗二枚</p>

이 보약일 뿐만 아니라 감기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띈다.

그때에 뒷문으로 발자국소리가 가까워온다. 그는 탕반이 오는줄 알았다. 그랬더니 양철통을 들고 낡은 맥고자를 쓴 친구가,
「쌍화탕쓰십쇼,」
하고 뜰안을 디러다본다.
「자네 쌍화탕한그릇 마시게나,」
그러나 경호는 낫을 짚으려고
「안사우 안사우. 우리양약은 어떻게구,」
하였다.
「몸에 좋으십니다. 감기에두 좋으시구 보약두되시고,」
「듣기싫어요. 어서가우 어서가,」
느려져붙든 쌍화탕장수도 겁을 집어먹고 나가버린다.
「쌍화탕장수는 왜 그리 미워하는가. 무슨 원수를 졌나,」
경호는 제가 하는 태도가 좀 우스워서 입술을 찡긋하고,
「그놈 또 병원에와서 약팔려는수,」
하고 있는데 진찰실 있는쪽에서 간호부가 이편쪽을 바라보며,
「복센세이,」
하고 경호에게 손짓을 한다.²⁵⁾

위에 인용된 부분은 병원에서 의사의 조수로 일하는 주인공 경호에게 친구인 김학선이 쌍화탕을 권하고 경호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다. 이때 쌍화탕을 양철통에 넣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파는 약장수가 “감기에도 좋고 보약도 되는” 쌍화탕의 효능을 설명하자, 경호는 “우리 양약”을 들먹이며 거절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고려 후기의 태평혜민화제국방이나 조선 중기 동의보감과 같은 근대 이전 의서에서 기혈을 보하는 ‘보약’으로 분류되어온 쌍화탕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감기약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쌍화탕의 적응증으로 감기가

언급되고 있는 여러 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1869년 황도연이 저술한 『의방활투(醫方活套)』에 언급된 쌍화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방활투에서는 허로(虛勞)에 대한 처방뿐만 아니라 중한(中寒)에 쓰는 처방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이어 1871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약 및 민간의로 처방이 정리된 의서인 『의휘(宜壘)』에서는 감기에 쓰이는 쌍화탕의 효능에 대해 “감기에 자주 걸려 피로하고 몸이 축나고 음이 쇠약해지며 피곤한 증상에 쌍화탕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d)27)} 즉, 쌍화탕의 적응증으로 감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쓰여진 『속음청사(續陰淸史)』,²⁸⁾ 『봉남일기(鳳南日記)』²⁹⁾ 등의 일기문에도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쌍화탕이 감기약으로 소개되고 있는 신문기사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1938년 조현영이 쓴 칼럼 기사에서는 “십신탕(十神湯,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병의 원인을 쫓고 난 후에 회복이 늦을 때 원기를 주고 화해(和解)를 약간 겸한 약”으로 쌍화탕을 소개하며 복용을 권하고 있다.³⁰⁾ 이처럼 감기약으로서의 쌍화탕이 신문기사에서도 소개된 것은 당시 쌍화탕이 보약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에 쓰는 약으로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쌍화탕의 일상화와 대중적인 확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조선 후기 이후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쌍화탕이 보약으로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동시에 감기약으로도 새롭게 소개된 배경에는 먼저 조선 후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보양’을 강조한 치료법의 대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기를 복돋는 보양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영조의 경우 특히 인삼을 자주 복용하였는데, 이러한 영조의 인삼 선호는 당시 사대부뿐만

d) 感氣許多, 勞損陰衰, 德困等症, 雙和湯最宜多多服之.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중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직접적으로 담(淡)과 화(火) 등의 병사(病邪)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치료법이 내의원(內醫院)에 의해 왕실(王室)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게 되는 가운데, 인삼(人參) 복용을 선호한 영조(英祖)의 취향과 맞물려 보다 안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양기(陽氣)를 훼손하지 않는 보법(補法) 위주의 경향으로 변화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³¹⁾ 이러한 조선 후기의 보약(補藥) 선호 풍조는 지금까지도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전통의약과 비교했을 때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 한의학(韓醫學) 특유의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고, 보약(補藥)으로서의 쌍화탕(雙和湯)의 활용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보양 문화(補養文化)의 활성화와 더불어 보약(補藥)이던 쌍화탕(雙和湯)이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이르기까지 감기약(感冒藥)으로도 널리 활용된 데에는 조선에서 특히 발달한 양감상한(兩感傷寒) 개념(概念)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경(陰經)과 양경(陽經)이 동시에 병드는 경우”를 일컫는 양감상한(兩感傷寒) 개념(概念)은 이미 황제내경(皇極內經)에서 처음 언급된 바 있으나, 조선 후기의 의학자(醫學家)들은 이를 보다 특수화(特殊化)하여 “신허(腎虛)한 상태에서 외감(外感)의 풍한(風寒)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³²⁾ 이러한 인식(認識)의 배경(背景)은 외감(外感)을 내상(內傷)과의 관계(關係) 속에서 이해(理解)하려 한 동의보감(동의보감)에서의 한(寒) 개념(概念)의 특징(特徵)과 연결(連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기혈(氣血)을 보(補)하는 쌍화탕(雙和湯)은 내상(內傷)을 다스림(多士)으로써 한(寒)을 치료(治療)해주는 약(藥)의 역할(役割)을 하는 것으로 해석(解釋)될 수 있다. 결국(결국), 쌍화탕(雙和湯)이 개항기(開港期)를 거쳐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감기약(感冒藥)으로 활용(活用)된 데에는 조선 후기(朝鮮後期) 이후(以後) 일본(日本), 중국(中國) 등 인접(隣接) 국가(國家)의 의약전통(醫藥傳統)과는 구별(區別)되는

한국 전통의약(韓國傳統醫藥)의 뚜렷한 특징(特徵)으로 자리 잡은 양감상한(兩感傷寒)의 연장 선상(延長線上)에서 이해(理解)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背景) 아래 쌍화탕(雙和湯)은 이 시기(時期)에 보약(補藥)이자 감기약(感冒藥)으로 활용(活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양(補養)을 중시(重視)하게 된 치료법(治療法)은 차차(漸漸)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보양(補養)을 중시(重視)하는 문화(文化)로 연결(連結)되었고, 이는 보약(補藥)으로서의 쌍화탕(雙和湯)이 이후(以後) 음료(음료)로서 일상화(일상化)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影響)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4. 쌍화차의 등장

개항기(開港期)를 거쳐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이르러 보약(補藥)이자 감기약(感冒藥)으로서 민중(民衆)들의 일상(日常生活)에 자리 잡게 된 쌍화탕(雙和湯)은 해방(解放) 후 일련(連)의 과정(過程)을 거치며 다방(多房)에서 마시는 차(茶)의 한 종류(種類)로 개념(概念)이 확장(擴張)되며 새로운 변화(變化)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解放) 후의 이러한 변화(變化)와 관련하여 다방(多房)의 급증(急增)과 다방 문화(多房文化)의 대중화(大衆化), 외래문화(外來文化)이자 수입품(수입品)인 커피와(咖啡)의 경쟁(競爭) 등을 거쳐 쌍화“차”(雙和“茶”)가 등장(등장)하게 되는 과정(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쌍화탕이 다방의 메뉴가 되는 과정

2000년대 이후(以後) 최근(最近)까지 계속(계속)되고 있는 커피(咖啡)와 카페(咖啡)의 열풍(熱風)과 함께 출간(出刊)된 한국(韓國) 다방(多房)의 역사(歷史) 관련(相關) 문헌(文獻)들을 살펴(살펴)보면, 17세기 유럽(歐洲)에서 사교장(社交場)의 역할(役割)로 처음(처음) 나타나게 된 근대적(近代) 형태의 다방(多房)은 1920년대(1920年代)에 국내(國內)에 처음(처음) 등장(등장)하였고, 1930년대(1930年代)에는 다방(多房)이 “거리(街)의 오아시스(Oasis)”라는 예찬(豫贊)을 받(受)으며 문인(文人)이나 예술인(藝術人)들의 전용공간(專用空間)으로 사랑(愛)받다가 1940년대(1940年代)에 이르러 일반인(一般人)들도 찾(訪)기 시작(始)하면서 다방(多房)의 수도(數目) 급증(急增)하게 된 것으로 설명(說明)하고 있다.³³⁾³⁴⁾ 다방(多房)이 처음(처음) 등장(등장)하던 당시(當時)의 다방(多房) 메뉴(菜單)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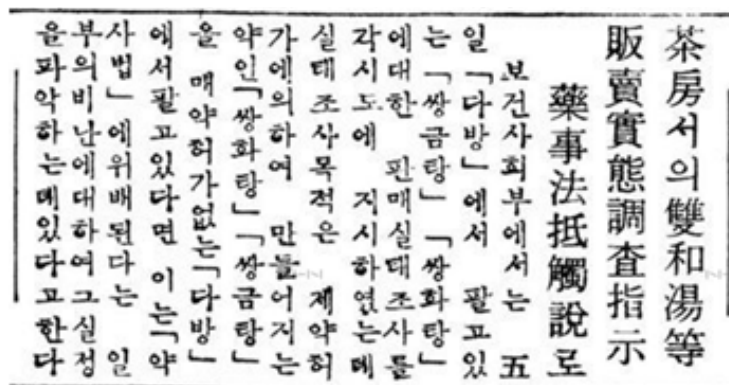


Figure 2. A newspaper report on the government’s investigation on the sales of SSangwha-tang in “Da-bang”³⁷⁾



Figure 3. Newspaper Advertisements on “Ssangwha-cha”³⁹⁾, “Bosin-cha”⁴⁰⁾

관련하여, 다방의 손님들은 누구나 차 한잔은 마셔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커피 외에 다양한 메뉴가 함께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김윤식³⁵⁾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당시의 다방 메뉴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다방을 소개하며 각 다방의 메뉴를 소개하고 있는 잡지 기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다방의 메뉴는 커피 외에도, 우유, 양유(羊乳), 홍차, 소다수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케이크와 과일, 약간의 카테일류가 있었고, 전통차는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쌍화탕이 다방에서 차로 처음 팔리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여러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면 해방 후에서 1950년대 후반 사이에 다방의 주요 메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그림 2의 내용은 다방에서의 쌍화탕 판매단속에 관한 기사이다.

1958년 11월 5일 보건사회부에서는 의약품인 쌍화탕을 다방에서 파는 것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다방에서의 쌍화탕 판매실태조사를 시행했다는 기사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당시 이미 상당수의 다방에서 쌍화탕을 판매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쌍화탕 판매단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세간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듣는 사람마다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모양”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³⁸⁾ 이를 종합해보면, 1958년 이전에 다방에서 쌍화탕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고, 음료로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쌍화탕이 다방에서 메뉴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1950년대에 이르러 쌍화“탕”이 아닌 쌍화“차”라는 표현이 신문 광고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위의 광고에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다방에서의 쌍화탕 판매

실태조사 때문인지 제품을 다방에서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방에서 팔 수 있는 ‘음료’로서 이름도 쌍화“탕”이 아닌 쌍화“차”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 달 뒤에 게재된 그림 3의 동일 제품 광고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쌍화”라는 이름 대신 “보신”차라는 이름으로 제품명이 바뀐다. 보신차라는 이름으로 바뀐 데에는 약으로 팔리고 있는 “쌍화탕”과 차별화함으로써 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양을 쌍화탕의 중요한 효능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강조하는 것이 차의 판매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조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작성된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면, 쌍화차는 위에 언급된 만국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밖에 유릿가루가 들어간 쌍화차를 마신 고객이 복통을 일으킨 사건⁴¹⁾이나 가짜 쌍화탕 판매 사건⁴²⁾도 소개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시 시중의 다방에서 쌍화탕이 인기 있는 메뉴였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해방 후 1950년대 신문기사와 광고를 살펴보면 쌍화탕은 이 시기를 거치며 다방에서 판매되는 주요한 음료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게 되고, 쌍화탕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쌍화“차”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커피값 인상과 커피 음용 비판, 새생활운동과 국산 차 애용 장려

쌍화차가 다방의 주된 메뉴로 자리 잡고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다방이 대중화된 1950년대에 제기된 높은

커피 가격과 수입품인 커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국산 차 애용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상황 또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의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다방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커피값 인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⁴³⁾ 이러한 맥락에서 수입제품인 커피 소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는 언론 기사 또한 이 시기에 함께 발견된다. 이 시기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당시 다방에서 팔리던 커피의 상당수가 밀수품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와 함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커피 병 환자”로 비난하는 기사 또한 눈에 띈다.⁴⁴⁾ 다방 이용과 커피 음용이 급격히 대중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비싼 커피값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입품인 커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이후 다방에서의 국산 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커피 대용의 국산 차에 관한 기사 또한 발견된다.

▲다방커피 한잔에도 200원. 담배와 같이 인백인 사람엔 값이 얼마하거나 무관하겠지만 이것이 순전한 사치품으로서 외자라는 것에 무시 못할 일. ▲요새 시내 다방엔 속칭 “아카데미 차”란 쌍화차가 크게 유행되어 커피의 대용품으로 등장 ▲커피 재료값이 몹시 올라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하여튼 국산품 애용은 환영할 것.⁴⁵⁾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품인 커피값의 인상과 함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커피의 대용품”으로 다방에서 국산 차가 메뉴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러한 커피 음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하여 1960년 대두되었던 “새생활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개신교계에서는 새생활운동을 “4·19 혁명 이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일상의 변혁을 통해 윤리적 삶의 회복을 외친 기독교 청년들의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⁶⁾ 이 운동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월 당시 서울대 문리대에 재학 중인 개신교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당시 막대한 양의 커피와 양담배 밀수에 반발하여 학생들은 거리와 다방, 요정이나 댄스홀로 몰려다니며 양담배와 커피 불매, 유흥 반대 시위를 벌였다.⁴⁷⁾ 1960년 당시 게재된 아래의 신문 칼럼에서는 새생활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필자가 지난 12월에 세계여행에서 돌아오자 집의 사람은 커피를 큰통으로 한통 사다 놓았다. 나는 이렇게 좋아하던 그 커피통을 남에게 주어 버렸다. 그리고 생각차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되지 않으며 또 커피를 가져오는 나라에 우리나라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있을때마다 학교나 일반집회에서 강연을 통하여 경제독립을 부르짖었고 커피 양담배등 외국산품을 우리몸과 입에 대지 말자고 외쳤다. 나는 연희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등에서 이 가슴아픈 실정을 호소한 일도 있었다. 이번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새생활운동’을 위하여 쫓기하였다. 그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것도 아니고 경제적 뒷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4월 19일 불의의 정치를 바로 잡던 그 피끓는 정의감이 이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 생활을 못하여 나라살림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또 하나의 햇불을 든 것이다...⁴⁸⁾

위의 칼럼의 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국가의 경제적 독립에 해가 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새생활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커피의 대안으로 보리차, 쌍화차, 생강차, 수정과, 식혜 등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쌍화차는 기존의 전통 음료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생활운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커피 불매운동은 이듬해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등장한 군사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도 드러난다. 1961년 한해를 돌아보는 한 신문기사 칼럼에 따르면, 5.16 군사정부는 “외래 커피를 마시지 말 것”이라는 기조 아래 몰래 커피를 판매한 다방에 영업정지를 하였는데, 61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150여 개에 이르고 그 중 다시 문을 연 13개 업소는 국산 차를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⁴⁹⁾ 이와 함께 민들레뿌리와 오미자, 볶은 콩으로 만드는 8종의 유사 커피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다방업자들은 아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의 기사에서는 당시 커피 판매를 규제하는 군사정부의 시책에 대해 다방협회에서는 커피 판매를 중지하고 국산 차의 품질향상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방업자들이 주 수입원인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에는 당시 군사정부의 시책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과 정부 양쪽으로부터



Figure 4. A newspaper article on coffee boycott⁵⁰⁾

동시에 제기되고 있던 민족주의적 담론의 영향과 함께,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무역 역조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 수입품 반대라는 명분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커피 음용에 대한 비판과 규제는 자연스럽게 국산 차 장려와 수요의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학생들의 자발적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새생활운동의 커피 음용 비판의 기조는 이듬해 군사정부의 강제적 조치에까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시기의 커피 판매 금지와 이에 대한 업자들의 호응은 국산 차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방문화와 쌍화차: 쌍화차, 다방의 주된 메뉴로 정착되다

해방 후 급증한 다방에서 ‘음료’로서 즐길 수 있는 쌍화차가 등장하게 된 가운데, 급증하는 커피 수요에 대한 우려와 반발, 이에 대한 대중운동과 군사정부의 시책 아래 국산 차가 장려되는 과정에서 쌍화차는 다방의 주된 메뉴로 정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 전후 다방이라는 공간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다방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급증하게 된 다방은 처음에는 “신식 서양 음료를 맛보던 장소”에서 “토론장, 집필실, 예술-문화 공간”, “음악을 즐기던 휴식의 장소”, “대중적인 만남의 장소”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 변화되어 갔다.⁵¹⁾ 쌍화차가 다방에서 중요한 메뉴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당시 다방이 바쁜 일상 중 잠시 쉬며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소개된 국산 차 장려의 분위기와 함께 쌍화차가 “보건”의 목적으로 다방에서 음용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의 신문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산 커피시대가 낙척된 세도가의 신세모양돼버린지 이미 오래다. 그대신 세월만난 것이 국산커피·홍차요 또 값은 백환가량이지만 그놈은 그저 물에 물탄격 메시꺼워 구역질이 날판이다. 차라리 같은 값이라면 생강밀이나 인삼차를 먹는 편이 낫다. 또 만약 2·3백환이란 비싼값을 내고 먹을바엔 잣죽·깨죽 같은 것이 훨씬 몸에 유익하다. 설탕물 한컵으로 해결하는데 몇백환. 농민·노동자나 세궁민들 보기가 낮기 뜻뜻할 지경이다. 여기서 국산차의 품질향상과 가격조정문제가 앞선다. 국산차론 한껏해야 생강차, 생강밀, 호도차 등이 있다. 또 보건용이라 불리우는 것으로는 인삼차·쌍화탕·용차 같은 것이 흔히 대중에게 애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는 재료의 정선여부와 보신가치 여하에 달렸다...⁵²⁾

위의 칼럼 기사에서는, 외국산 커피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품질의 국산 커피보다는 저렴하고 “몸에 유익”한 국산 차를 마시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보건용 차”로서 “쌍화탕”을 언급하는 가운데 “재료의 정선 여부”와 “보신 가치 여부”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커피라는 외래문화를 대신하여 국산 차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보양”이라는 한국의 전통의학에 입각한



Figure 5. Current advertisements on *SSangwha-cha* (2019-2020)⁵³⁾⁵⁴⁾

예방의학적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차의 음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쌍화차는 다른 한방차들과는 달리 쌍화“탕”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또한 흥미로운데, 쌍화탕과 쌍화차라는 이름은 서로 달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종류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약과 음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전통의학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음료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쌍화차는 20세기 말 아메리카노로 대변되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와 커피점의 유행 속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료로서, 현재까지도 “차”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약 처방이 차라는 음료로 일상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른 한약에 비해 쌍화탕이 특히 인기를 얻은 데에는, 쌍화탕이 다른 한약에 비해 비교적 마시기 쉬운 미각적인 강점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방에서 즐길 수 있는 음료로 활용되기에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중국 송대 의서인 『태평혜민화제국방』과 『동의보감』 등의 의서에서 기혈을 보하는 약으로 언급된 쌍화탕은 조선 후기 보양법의 유행 및 양감상한 개념과 함께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감기약으로 치료적

의미가 확장되었다. 한편, 이 시기 대약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전통 한약 처방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쌍화탕은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시기에 의서에서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일기, 수필, 탈춤, 민요 등 문학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에서 쌍화탕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대중화된 쌍화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중화된 쌍화탕은 해방 후 증가한 다방에서 ‘커피 외에 주문할 수 있는 음료’인 쌍화“차”라는 이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쌍화탕이 쌍화차라는 이름으로 다방의 주요 메뉴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당시 수입품이었던 커피에 대한 국가 경제적 부담과 커피 수요 급증에 따른 밀수품에 대한 우려,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담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바쁜 일상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였던 다방의 사회적 역할 등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또한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쌍화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쌍화차라는 음료로 정착하는 과정은, 보양의학으로서의 한국 한의학의 특징이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음식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일상화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전통의료가 가진 ‘보양’이라는 예방의학적 가치를 환기하게 해주는 동시에, 한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들의 건강에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조광연, 쌍화차의 추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 식량학회지. 1989;18(1):34-39:34.
2. 남대진, 오민석. 쌍화탕의 국내 연구 및 치험례에 대한 고찰. 2019;28(2):12-19:12.
3. 박소연, 이상록, 채승범, 이상재. 한방차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21(2):95-103:98.
4. 김영석, 권윤영, 전소정, 김창희, 이상재. 전통주에 이용되는 한약재의 특성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4;18(1):93-101.
5. 전소정, 김민지, 김창희, 권영규, 이상재. 약선 식당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4;18(2):81-88.
6. 김민지, 이상재. 국내 자생 약용식물의 식용부위와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9;23(3):59-70.
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2022.12.12. 인용) URL: <https://mediclassics.kr/>.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12.12. 인용) URL: <https://db.history.go.kr/>.
9.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022.12.12. 인용) URL: <https://newslibrary.naver.com/>.
1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 (2022.12.12. 인용) URL: <https://nl.go.kr/newspaper/>.
11. 太平惠民和劑局方(태평혜민화제국방). 太平惠民和劑局方卷五 > 諸虛不足 > 雙和湯. 한의학고전DB. (2022.12.12. 인용) URL: https://mediclassics.kr/books/196/volume/5#content_105.
12. 허준(동의문헌연구실 역). 대역 동의보감. 신증보. 법인문화사. 2017:1248.
13. 이천(진주표 역). 의학입문 신대역편주. 법인문화사. 2009:136,1215,2077.
14. 황지혜, 김남일. 일제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한약의

-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20;33(1):99-112:111.
15. 여인석, 이현숙, 김성수, 신규환, 박윤형, 박윤재. 한국의학사. 서울:의료정책연구소. 2012:210-213.
16.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 - '매약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2006;15(2):189-209:196.
17. 來(내)하엿나이다. 광고. 동아일보 1921.10.23. 1면; 特別大廣告(특별대광고). 광고. 동아일보 1922.09.25. 3면.
18. 1922년도 대구약령시현황(대구한약업자조합조사).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8輯, 조선의 시장. 1924: 139-142; 대구약령시, 대구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139-141.
19. 雙和湯行商(쌍화탕행상) 龍山署(용산역)에서 團東(구속). 매일신보. 1936.07.07. 7면. (2022.12.12. 인용)
20. 전봉관. 이수탁 살부 공판. 희극과 비극이 뒤엉킨 백만장자 외아들의 패륜 드라마. 신동아. 2005.07.15. (2022.10.28. 인용). URL: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4638/1>.
21. 晋州 南江畔의 빨대하든 女人. 삼천리 4(12). 1932: 12.01.
22. 이주영. 1930년대<봉산탈춤>과 전통의 향방. 어문론집. 2021:86:277-300:279.
23. 문장사, 문장 2(6), 1940.7, 273-306:304.
24. 김혜정. 진도아리랑 형성의 음악적 배경. 2004:35:269-284:274.
25. 김남천. 제퇴선. 서울: 이프리북스. 2013.
26. 황도연. 方藥合編(방약합편), 남산당. 1987:371.
27. 宜彙(의회). 1871. 宜彙 卷之一 > 寒 > 彌留觸風. 한의학고전DB. (2022.12.12. 인용) URL: https://mediclassics.kr/books/60/volume/1#content_160.
28. 김윤식^a. 續陰晴史(속음청사). 卷五. 1891. 續陰晴史 卷五 > 高宗 28年 辛卯 正月~8月 > 高宗 28年 辛卯 6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2022.12.12. 인용) URL: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5&totalCount=15&itemId=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0&levelId=sa_013_00

- 50_0030_006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8C%8D%ED%99%94%ED%83%95&searchKeywordConjunction=AND.
29. 변만기. 鳳南日記(봉남일기). 1903. 鳳南日記(附 晦山日記) > 鳳南日記 > 癸卯年(1903) > 正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2022.12.12. 인용) URL: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5&totalCount=15&itemId=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3&levelId=sa_057_0020_0100_001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8C%8D%ED%99%94%ED%83%95&searchKeywordConjunction=AND.
 30. 조현영.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감기의 치료법. 알른 증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동아일보 1938.2.23.
 31.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16(2):151-160: 151,156.
 32. 오준호. 양감상한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들의 상한 인식. 의사학. 2012;40(1):1-23:6,15,18.
 33. 강준만.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5.
 34. 이정학. 가비에서 카페라떼까지: 한국 커피와 다방의 사회문화사. 2012.
 35. 김윤식^b. 다방,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서울: 한겨레출판. 2012.
 36. 喫茶店評判記(먹다점평판기), 삼천리 6(5): 1934. 05.0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잡지자료. (2022.12.12. 인용) URL: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ma&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ma_016_0390_0700&position=-1.
 37. 茶房(다방)서의 雙和湯等(쌍화탕등) 販賣實態(판매 실태) 調査指示(조사지시). 동아일보 1958.11.06. 3면.
 38. 썩덕공론. 동아일보. 1958.11.06. 2면.
 39. 민국인삼배쌍화차. 광고. 동아일보. 1958.11.30. 2면.
 40. 민국인삼배보신차. 광고. 동아일보. 1959.01.09. 4면.
 41. 茶(다)속에유리가루 顧客(고객)들 腹痛騷動(복통소동). 동아일보. 1959.10.31. 4면.
 42. 商標(상표)위조犯(범) 逮捕(체포). 경향신문. 1960. 12..09.
 43. 휴지통. 동아일보. 1959.01.09. 4면.
 44. 커피病患者(병환자). 1950.05.18. 경향신문.
 45. 휴지통. 1950.02.26 동아일보. 2면.
 46. 오요셉. 부정부패에 맞선 기독교 청년들의 '새생활운동'. 2019.3.8. 크리스천 노컷뉴스. (2022.11.01. 인용) URL: <https://christian.nocutnews.co.kr/news/5115396>.
 47. 한현구. 4.19부터 5.16, 격동의 시기. 그곳에 '새생활운동'이 있었다. 2019.3.7. 기독교연합신문. (2022. 11.02. 인용). URL: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363>.
 48. 이일선. 새생활운동을 국민운동으로. 1960.08.11. 경향신문. 4면.
 49. 간직하고 싶은 遺産(유산) 1961년을 보내면서 (1) 다방과 거리 1961.12.17. 경향신문.
 50. 커피는 안 팔겠소. 1961.05.29. 동아일보.
 51. 김석수. 한국 다방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1997:13:37-44:42.
 52.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06.11. 1면.
 53. 신선미. "겨울철엔 쌍화맛집이지"... 스무디킹, 광동 제약과 콜라보. 2019.11.21. 한국경제TV. (2022. 11.11. 인용). URL: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1210322>.
 54. 이에은. 이디야커피,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출시. 2020.11.16. 조선일보. (2022.11.02. 인용). URL: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0/11/16/SE4CZNBDLVCSZC575GXYBLYEQ4/.